

# 속성 이원 논변과 현상적 개념\*

김 현 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 I. 현상적 의식

현상적 의식(phenomenal consciousness)의 문제는 심적 인과와 함께 물리주의적 세계관의 마지막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Kim, 2001). 현상적 의식 상태에는 지각적 경험, 신체적 감각, 심적 이미지, 정서적 경험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거나, 고통이나 간지러움을 느낄 때 보다 선명하게, 또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느끼거나 상상 속에서 지각적 심상을 그려볼 때 다소 약하게 현상적 의식을 경험한다. 현상적 의식은 일인칭적, 주관적 관점에서 느끼는 날 느낌(raw feel), 감각질(qualia)을 가리키며, 인지적 의식과 달리 인과적, 기능적으로 포착되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를 부정하기 쉽지 않다.

## II. 지식 논변, 상상가능성 논변, 속성 이원 논변

### 1. 지식 논변의 내용

지식 논변(knowledge argument)에 의하면, 신경생리학자 메리는 천연색이 존재하지 않는 방에서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 “붉은 토마토를 보는 경험은 피라미드 세포의 활성화라는 신경생리학적 성질

---

\* 이 글은 글쓴이의 석사 논문, 「속성 이원 논변과 현상적 개념」(서울대학교 철학과, 2004)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을 가진다”는 지식을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물리적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메리가 흑백 방에서 나와 붉은 토마토를 처음 보면, “붉은 토마토를 보는 경험은 붉은 현상적 성질을 가진다”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된다. 가정에 의해 이 지식은 비물리적 사실에 대한 것이고, 모든 사실은 물리적 사실이라는 물리주의(physicalism)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Jackson 1982, 1986). 위 주장을 논변화하면 다음과 같다.

1. 흑백 방에서의 메리는 모든 물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정).
2. 붉은 토마토를 본 메리는 (현상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위 사고 실험에 대한 직관).
3. 따라서 이 새로운 지식은 비물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다(전제 1, 2로부터).
4. 그러므로 이 세계에는 물리적 사실 이외의 다른 사실이 없다는 물리주의는 거짓이다(결론).

## 2. ‘새로운 지식/기존의 사실’ 반론과 비외연적 맥락에서의 불투명성(opacity)

그러나 위 지식 논변에 대하여 메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물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현상적 개념(phenomenal concept)을 적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유력한 반론이 있다(Horgan, 1984). 예를 들어 “셋별은 행성이다”라는 지식은 “개밥바라기는 행성이다”라는 지식과는 별개이지만, 실제로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천체이므로 위 두 지식은 동일한 사실에 대한 것이고, 각 지식에 대응하는 별개의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메리가 새로 알게 된 “붉은 토마토를 보는 경험은 붉은 현상적 성질을 가진다”는 지식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붉은 토마토를 보는 경험은 피라미드 세포의 활성화라는 신경생리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지식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지만, 물리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붉은 현상적 성질이 피라미드 세포의 활성화라는 신경생리학적

성질과 동일한 것이라면, 위 두 지식은 동일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메리는 그 현상적 성질을 직접 주관적으로 경험함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적 개념을 통해 기존의 현상적-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지식이 별개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별개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물리주의의 거짓이라는 논증하고자 하는 결론을 선취하는 것(question-begging)에 불과하다.

이러한 반론은 상상가능성 논변(conceivability argument)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sup>1)</sup> 이원론자는 현상적 의식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신경 상관자(neural correlate)는 존재하는 좀비세계(zombie world)의 상상가능성, 즉 개념적 무모순성(conceptual consistency)으로부터 현상적 의식과 신경 상관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려 한다(Chalmers, 1996). 그러나 클락 켄트가 슈퍼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텍스는 ‘슈퍼맨은 난다’는 명제를 믿으면서 동시에 ‘클락 켄트는 난다’는 명제는 믿지 않을 수 있으며, 셋별이 개밥바라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철수는 ‘셋별은 새벽에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를 믿으면서 동시에 ‘개밥바라기는 새벽에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는 믿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합리적 주체가 ‘좀비 가능세계 w에서 c-신경섬유의 활성화가 발생한다’고 믿는 동시에 이와 구별되는 명제인 ‘w에서 고통이 발생한다’를 믿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통과 c-신경섬유의 활성화는 실제로 동일한 상태일

1) 상상가능성 논변의 기본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Chalmers, 1996).

1. 이 현실 세계에는 현상적 의식경험이 있다.
2. 물리적으로는 이 세계와 동일하지만 이 세계의 현상적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좀비세계가 상상가능(conceivable)하다.
3. 물리적으로는 이 세계와 동일하지만 이 세계의 현상적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좀비세계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metaphysically possible)하다.
4. 따라서 이 세계의 현상적 의식에 대한 사실은 물리적 사실을 넘는(over and above) 그 이상의 것이고, 물리주의는 거짓이다.

좀비세계의 상상가능성이 사실상 그 기술의 선험적 무모순성과 동치라는 점, 좀비세계가 개념적으로 모순이 아니라고 보는 직관적 이유, 고정 지시어(rigid designator) 간의 동일성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이므로 좀비세계의 형이상학적 가능성은 물리주의 또는 현상적 의식과 그 신경 상관자의 동일성과 모순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글쓴이의 논문(pp.5-11)을 참조.

수 있다. 하나의 세계를 다수의 개념으로 표상하면서도 그 개념들이 같은 세계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좀비세계의 개념적 무모순성은 그것의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Levine, 2001).

### 3. 두 제시되는 양태 → 두 사실 또는 두 속성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반론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한 대상에 대하여 별개의 지식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대상이 주체에게 제시되는 양태(mode of presentation)<sup>2)</sup>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 특정한 제시 양태를 가진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사실이다. 메리가 방에서 나오기 전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의 어떤 두뇌 상태가 ‘붉은 현상적 경험’이라는 제시 양태를 가진다는 사실도 알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므로 비물리적 사실이 존재한다(Chalmers, 2004).

또한 각 제시 양태에 대응하여, 대상은 주체에게 제시되는 별개의 속성을 가지고, 주체는 그 속성을 통해 대상을 파악, 지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금성은 ‘셋별’이라는 양태에서는 ‘새벽에 가장 늦게 지는 천체임’이라는 속성을 통해 제시되고, ‘개밥바라기’라는 양태에서는 ‘저녁에 가장 먼저 뜨는 천체임’이라는 속성을 통해 제시된다.

### 4. 속성 이원 논변(property dualism argument)

속성 이원 논변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일반화한 것이다. 즉 선행적으로 동연적이지 않은 두 개념이 서로 다른 양태 하에서 한 지시체를 제시하면, 각 양태에 대응하여 지시체의 서로 다른 두 지시 고정(reference-fixing) 속성<sup>3)</sup>이 존재한다. 우리는 한 대상이 그 두

2) 제시 양태의 기본적 의미는 문자 그대로 세계가 주관에게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지시(reference)와 관련하여 제시 양태는 프레제적인 의미(sense)와 유사하게 선행적으로 화자의 주관에 의해 파악되어 지시체와 결합하는 의미론적 힘을 가진 것이다.

지시고정 속성을 동시에 예화한다는 것을 앎으로써 두 개념이 동연적이라는 것, 즉 지시체가 같다는 것을 후험적으로 알게 된다(White, 1986). 그런데 위 모델이 ‘고통=c-신경섬유의 활성화’와 같은 현상적-물리적 동일성 명제에 적용되면, 위 대상은 ‘고통’이라는 양태에서 ‘고통스러운 현상적 느낌’이라는 속성을 통해 제시되고, 이 속성은 비물리적이고 심적인 것으로 보인다.<sup>4)</sup> 위 주장을 간략히 논변화하면 다음과 같다.

1. 합리적 주체가 용어 x와 y의 동연적(coreferential)임을 선형적으로 알 수 없다면, x의 제시 양태는 y의 제시 양태와 다르다.<sup>5)</sup>
2. x와 y의 제시 양태가 다르다면, x의 지시 고정 속성은 y의 지시 고정 속성과 다르다.<sup>6)</sup>
3. ‘(시점 t에서 주체 S의) 고통’의 지시 고정 속성이 어떤 물리적 기술의 지시 고정 속성과 동일하다면, (합리적 주체는)

- 
- 3)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화자는 자신이 선형적으로 용어에 관련시키는 (associate) 속성 중 일부에 대하여 용어가 그 특정 속성을 예화하는 대상을 지시하도록 지시 고정 역할(reference-fixing role)을 부여하고, 대상은 이러한 지시 고정 속성을 예화함으로써(in virtue of) 그 용어의 지시체가 된다. 흔히 인과적 지시 이론에 의해 논박되었다고 여겨지는 지시 관계의 설명에 관한 이러한 일종의 기술적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글쓴이의 논문(pp.35-37)과 Jackson(1998)을 참조.
  - 4) Block(forthcoming)은 이와 같은 이유로 현상적-물리적 동일성 명제가 스스로를 반박하는(self-defeating) 현상을 ‘메타현상적 운동(metaphenomenal move)’이라고 부른다.
  - 5) 두 용어간의 동일성 명제가 동어반복(tautology)이 아니라 인식적 유의미성(cognitive significance)을 갖는 점, 합리적 주체가 하나의 대상에 대해 모순되는 명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제시 양태가 이와 같이 충분히 세분되어야(fine-grained) 한다.
  - 6) 속성을 주관과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형이상학적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선형적으로 동연적이지 않은 용어마다 별개의 속성이 존재할 만큼 속성이 미세하게 개별화될 리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별개의 속성이 아니더라도, 제시 양태가 다른 두 용어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는 지시체의 성질들(features) 또는 측면들(aspects)이 적어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원 논변은 그러한 성질이나 측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통’과 그 물리적 기술이 동연적임을 선형적으로 알 수 있다(전제 1, 2로부터).

4. 어떠한 물리적 기술도 ‘고통’과 선형적으로 동연적이지 않다.
5. ‘고통’의 지시 고정 속성과 물리적 기술의 지시 고정 속성은 다르다(전제 3, 4로부터).<sup>7)</sup>

그러나 이러한 비물리적 속성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물리주의자들은 이 논변에 대해 다양한 반론을 제기한다.

### Ⅲ. 속성 이원 논변에 대한 물리주의자들의 반박

#### 1. 과학적으로 밝혀진 후험적 동일성 명제와 기능적 분석

물리주의자들은 속성 이원 논변에 의해 선형적으로 동연적이지 않은 개념마다 별개의 속성이 존재한다면, ‘물= $H_2O$ ’, ‘열=기체의 평균 분자운동에너지’와 같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후험적 동일성 명제의 경우 물리주의와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물’이라는 개념은 선형적으로 ‘투명하고 마실 수 있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바다를 채우는 액체...’와 같이 인과적 역할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대상은 ‘물’이라는 양태에서 위와 같은 토픽 중립적(topic-neutral) — 명시적으로 물리적이지도 않고 심적(mental)이지도 않은 — 거시 속성을 통해 제시되고  $H_2O$ 라는 물리적 분자 화합물을 지시하므로, 물리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반면 ‘고통’과 같은 현상적 개념은 제시 양태와 그 지시 대상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기능적으로 분석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찰가능한 행동을 비롯한 모든 기능적 측면에서 정확히 나와 동일하지만

7) McGinn(2002) 등은 위 논변에 ‘물리적 기술의 지시 고정 속성과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속성은 동일하다’, “고통’의 지시 고정 속성과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속성은 동일하다’는 전제를 추가하여 고통이라는 현상적 속성은 어떠한 물리적 속성과도 다르다는 결론을 직접 도출하는 것을 속성 이원 논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 부가적인 전제들을 반박함으로써 물리주의를 옹호하려는 시도와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하여는 글쓴이의 논문(pp.39-44)을 참조.

현상적 경험은 갖지 않는 좀비는 개념적으로 모순이 아니다.<sup>8)</sup>

## 2. 제시 양태 없는 직접 지시(direct reference)와 현상적 개념

또한 Loar(1990, 1997)와 같은 물리주의자들은 현상적 개념이 직접 재인 개념(direct recognitional concept)으로서 어떠한 제시 양태나 지시고정 속성도 통하지 않고 직접 물리적-현상적 상태를 지시하므로, 위와 같이 현상적 개념과 물리적-현상적 상태를 매개하는 비물리적 속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sup>9)</sup>

일반적으로 지시사(demonstrative)와 같은 색인어(indexical)는 지시고정 속성을 통하지 않고 대상을 지시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한 대상이 ‘이것’, ‘사전’이라는 두 단어에 의해 지시되는 경우, ‘이것은 무겁다’와 ‘사전은 무겁다’는 서로 다른 지식이고, ‘이것이 사전이다’는 선형적으로 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이것’이라는 색인어에 의해 지시되는 경우, 주체는 어떠한 지시고정 속성도 통하지 않고 대상을 파악,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어떠

8) 속성 이원 논변이 옳다면 이원론자가 ‘기능적 분석을 통해 환원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속성은 물리적인 사실에 수반하지 않는 비물리적인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에 개입(committed)하고, 현상적 개념이 기능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속성 이원론자가 ‘물= $H_2O$ ’와 같은 후협적 동일성 명제의 경우 ‘물’이 기능적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토픽 중립적 속성을 통해 제시·지시고정되므로 물리주의에 어긋나지 않음을 보이면, 오히려 물리주의자가 일응 비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상적 개념의 제시 양태에 관하여 비물리적이지 않은 — 그것이 기능적 속성이든 지향적·표상적 속성과 같이 심적 현상에 고유하면서도 비물리적이지 않은 것이든 — 지시 고정 속성의 존재를 입증할 부담을 지게 된다. 속성 이원 논변을 수용하는 McGinn(2002)은 기능적 용어와는 다른 새로운 토픽 중립적 개념이 발견됨으로써만 설명적 간극을 메우고 심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Nagel(1998)은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통해 물리주의가 옹호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편다.

9) 메리가 새로 획득한 지식은 비물리적 사실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직접 내성적으로 시각적 색깔 경험을 재인할 수 있는 능력(ability) 또는 절차적 지식(know-how)에 불과하다는 반론(Lewis, 1983)도 이러한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한 대상인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화자는 ‘이것’이라는 색인어로 그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sup>10)</sup> 현상적 개념이 이와 같이 지시고정 속성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종류의 내적 상태’를 지시하는 유형 지시사(type-demonstrative)라면 속성이원 논변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Perry, 2001).<sup>11)12)</sup>

그러나 이러한 유형 지시사는 현상적 개념의 본질인 내적 질감을

- 
- 10) 물론 지시사와 같은 색인어가 정말로 ‘어떠한 제시 양태나 지시 고정 속성도 없이’ 대상을 지시하는지에 대하여도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글쓴이의 논문(pp.52-54)을 참조.
- 11) Loar(1997) 자신이 제시하는 유형 지시사 같은 재인 개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현상적 개념들은 내가 재인 개념이라고 부르는 넓은 부류의 개념들에 속한다. 이들은 ‘x는 그 종류의 하나(one of that kind)이다’라는 형식을 가지는 유형 지시사이다. 이 유형 지시사들은 지각적 구별에 의하여(by way of perceptual discriminations) 어떠한 대상, 사건, 상황들을 분류해내는 성향(disposition)에 기초해 있다. 당신이 캘리포니아 사막에 가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즙식물(succulent)을 발견하고, 그 사례들을 알아보는 데 능숙해져서, 그에 대한 이름 없이도 그 종류에 대한 재인 능력을 구사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 종류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을 분간함(identify)으로써 그 종류를 지시하도록 성향화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례는 어떠한 제시 양태도 없이 대상을 지시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기술적(descriptive) 제시 양태가 아닌 지각적(perceptual) 제시 양태를 통해 특정 종류의 대상을 분간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기술적 제시 양태가 아님이 어떠한 제시 양태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주 15 참조.
- 12) 오히려 Balog(1999)이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요기(Yogi)의 플러그(flurg) 개념이 이와 같이 지시고정 속성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적 상태’를 지시하는 유형 지시사에 가까운 구체적인 사례로 보인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생물체가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자. 그들은 우리가 형성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우리와 동일한 물리적, 심적 구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람들을 요기라고 부르자. 요기들은 그것을 두뇌 상태라고 개념화하지 않고도 자신의 특정한 두뇌 상태를 직접 탐지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요기-개념이 우리의 현상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즉 어떠한 물리적, 기능적, 추상적 개념의 매개도 거치지 않고 지시체에 직접 적용된다. 특이한 것은 요기-개념의 경우 지시가 현상적 느낌(phenomenal feel)에 의해서도 매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기들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자신의 어떤 내적 상태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탐지할 수 있는 두뇌 상태 중 하나를 상태 A라고 하자. 또한 그들이 상태 A를 직접 지시하기 위해 ‘플러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자.” McConnell(1994)도 이미 유사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 만약 현상적 개념이 그러한 맹목적 지시사라면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현상적 개념들을 내적으로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sup>13)</sup> 메리가 얻은 새로운 지식에 사용된 진정한 현상적 개념은 ‘이러이러한 현상적 성질을 가진 종류의 내적 상태’를 의미하며,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맹목적 유형 지시사와는 별개의 개념이다(Chalmers, 2003). 현상적 상태에 대한 유형 지시사와 진정한 현상적 개념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분명하다. 첫째, 전자는 지시하는 대상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거의 없이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투명하고 ‘제시적으로 얇은(presentationally thin)’ 개념인 반면, 후자는 특정한 종류의 현상적 질감과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이고 명확한 제시 양태를 가지는 ‘제시적으로 두터운(presentationally thick)’ 개념이다. 우리는 단순히 무엇인지 모르는 무언가를 ‘고통’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sup>14)</sup> 둘째, 선형적으로 양자가 동연적임을 알 수 없으므로 제시 양태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적 상태는 고통스러움이라는 현상적 성질을 가진 상태이다’라는 믿음은 ‘이것이 사전이다’라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해서만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내가 가리키는 대상이 사전이 아니라 책상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가려움이라는 현상적 성질을 가진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13) Raffman(1995)은 내성적으로 탐지 가능한 현상적 성질의 무시를 ‘구별의 문제(differentiation problem)’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시사주의(demonstrative line)는 우리가 내성적으로 스스로의 모든 경험을 단순히 이것(이 속성 또는 이 경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우리의 경험을 내성적으로 동일하게 만든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경험들은 내성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각각의 지각적 차원에서 복잡한 유사성과 차이의 관계에 놓여있다.”

14) Levine(2001)은 ‘이것=사전’과 같은 단순한 지시사나 색인어에 관한 동일성 명제와는 달리, ‘고통=c-신경섬유의 활성화’와 같은 현상적-물리적 동일성 명제에는 두 개념이 왜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의 요구가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틈이 있다(gappy)’고 주장한다.

다른 색인어와 마찬가지로 지시사의 지시체는 다양한 문맥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진정한 현상적 개념의 지시체는 문맥과 무관하게 항상 특정한 질적 종류이다.<sup>15)</sup>

진정한 현상적 개념은 현상적 상태에 대한 유형 지시사와는 달리 여전히 비물리적으로 보이는 지시고정 속성을 통해 현상적-물리적 상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고통'의 지시고정 속성 자체도 실제 물리적 속성이다

→ 문제의 반복

또한 물리주의자들은 '고통'이라는 양태에 대응하는 지시고정 속성, 즉 '이러이러한 현상적 느낌을 가짐'이라는 속성이 일견 비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물리적 속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Levine, 1993).

위 주장대로 '고통의 제시 양태(고통스러운 현상적 느낌을 가짐)= 또 다른 물리적 속성(예를 들어, d-신경섬유의 활성화)'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자기 두뇌의 물리적 성질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내성적 관찰을 통해서만 현상적-물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주체는 위 동일성 명제의 참을 선형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동일성 명제에 속성 이원 논변을 다시 적용하면, 위 주체가 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d-신경섬유의 활성화의 제시 양태, 즉 고통의 제시 양태의 제시 양태로서의 지시 고정 속성을 상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정상 위 주체는 자기 두뇌의 물리적 성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위 주체가 파악할 수 있는 고통의 제시 양태의 제시 양태

15) 이처럼 양자가 서로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 개념을 지시사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주장이 일응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현상적 개념 내용의 형언할 수 없음(the ineffability of phenomenal contents)이 이러한 혼동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상적 언어는 현상적 개념이 지시하는 풍부한 현상적 성질을 완전히 표현하기에 부족하므로, 우리는 보통 현상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지시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경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언어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두 개념 내용의 차이가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는 다시 비물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물리주의자들의 반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사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퇴행(regress)에 빠진다. 또한 '고통'과 같은 현상적 개념은 제시 양태와 그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참이라면, 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통의 제시 양태의 (표면적) 비물리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론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 References

- Balog, K.(1999), "Conceivability, Possibility, and the Mind-Body problem", *Philosophical Review*, 108.
- Block, N.(forthcoming), "Max Black's objection to Mind-Body Identity", in Zimmerman, D., eds. *Oxford Studies in Metaphysics III*, Oxford University Press, URL = <<http://www.nyu.edu/gsas/dept/philo/faculty/block/papers/MaxBlackclean.pdf>>.
- Block, N., Flanagan, O., and Güzeldere, G., eds.(1997), *The Nature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Debates*, Cambridge, Mass: MIT Press.
- Chalmers, D.(1996), *The Conscious Mind: In Search of a Fundamental Theor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The Content and Epistemology of Phenomenal Belief", in Smith, Q. & Jovic A., eds. *Consciousness: New Philosophical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Phenomenal Concepts and the Knowledge Argument", in Ludlow, P., Nagasawa, Y. & Stoljar, D., eds. *There's Something about Mary: Essays on Frank Jackson's Knowledge Argument Against Physicalism*, MIT Press. URL = <<http://jamaica.u.arizona.edu/~chalmers/papers/knowledge.html>>.
- Gillett, C. & Loewer, B.(2001), *Physicalism and its Discont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gan, T.(1984), "Jackson on Physical Information and Qualia", *Philosophical Quarterly* 32, 127-136.
- Jackson, F.(1982), "Epiphenomenal Qualia", *Philosophical Quarterly*

- 32, 127-136.
- \_\_\_\_\_ (1986), "What Mary Didn't Know", *Journal of Philosophy* 83, 291-295, reprinted in Block et al. eds.(1997).
- \_\_\_\_\_ (1998), "Reference and description revisit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12, Language, Mind, and Ontology*, pp.201-218.
- Kim, J.(2001), "Mental Causation and Consciousness: The Two Mind-Body problems for the Physicalist", in Gillett, C. & Loewer, B.(2001).
- Levine, J.(1993), "On leaving out what it's like", in *Consciousness: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Essays*, ed. Davies, M. and Humphrey, G., Oxford: Blackwell.
- \_\_\_\_\_ (2001), *Purple Haze: The Puzzle of Consciousnes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1983), Postscript to "Mad Pain and Martian Pain", in *Philosophical Papers,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ar, B.(1990), "Phenomenal States", in Tomberlin, J., eds., *Philosophical Perspectives, vol. 4*, Atascadero: Ridgeview.
- \_\_\_\_\_ (1997), "Phenomenal States" (second version), in Block et al. eds.(1997).
- McConnell, J.(1994), "In defense of the Knowledge Argument", *Philosophical Topics* 22, 157-187.
- McGinn, C.(2001), "How not to Solve the Mind-Body problem", in Gillett, C. and Loewer, B.(2001).
- Nagel, T.(1998), "Conceiving the Impossible and the Mind-Body Problem", *Philosophy* 73; 337-352.
- Perry, J.(2001), *Knowledge, Possibility and Consciousness*, Cambridge: MIT Press.
- Raffman, D.(1995), "On the persistence of Phenomenology", in

*Conscious Experience*, ed. Metzinger, T., Paderborn:  
Ferdinand Schoningh.

White, S.(1986), "The Curse of the Qualia", *Synthese* 68:  
333-368, reprinted in Block et al. eds.(1997).